

국립중앙박물관과 카이스트는  
팔레스타인 문화 유산 파괴, 인종 학살 연루 기관

#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과대학을 CIPA 2025에서 제외하라!

오는 2025년 8월 25일(월)부터 8월 29일(금)까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디지털 헤리티지 심포지엄 CIPA 2025 SEOUL’이 개최됩니다. CIPA 심포지엄은 디지털 헤리티지(문화유산)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학술 행사 중 하나로, 올해 30주년을 맞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보존’을 주제로 하여 국립중앙박물관과 카이스트의 공동 주관으로 열립니다. 이처럼 유서 깊은 학술 행사에 인종 학살과 문화 유산 파괴 공범 기관인 이스라엘 테크니온 대학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문화 유산의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을 말하는 자리에 전쟁 범죄 공조 기관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 테크니온은 학살 공범 기관

테크니온 공과대학은 평범한 연구·교육 기관이 아닙니다. 테크니온은 지난 77년간 이어져 온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을 과학 기술로 뒷받침하고, 이스라엘 정부·군·방위 산업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테크니온과 연구 개발 분야에서 꾸준히 협력한 이스라엘 방산 기업들은 현재 가자지구 인종 학살에 사용되는 무기를 이스라엘 군에 공급할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실전 테스트’를 통해 무기 체계를 개발해 왔습니다. 테크니온은 군사용 무인 차량 및 드론, 팔레스타인 주택 파괴(국제법상 집단 처벌로 간주)에 사용되는 무인 불도저의 원격 제어 기능, 팔레스타인인들의 시위 해산을 목적으로 한 음향 무기 등을 개발해



왔습니다.

## 이스라엘은 문화 유산의 철저한 파괴자

테크니온은 8월 24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CIPA2025에서 ‘문화유산 중요성 평가를 위한 인공지능(AI)의 활용’을 주제로 사전 워크숍을 열 자격이 없습니다.

CIPA의 공동 설립 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팔레스타인 위원회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4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가자지구의 대체 불가능한 팔레스타인 문화 유산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파괴했습니다. 또한 가자지구의 350개 고고학 유적지, 역사 지구, 자연 랜드마크, 전통 건물 중 최소 3분의 2가 “일부 또는 전체 폭격을 받아 파괴되었으며, 이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문화적, 인간적 유산과 세계 문화 유산이 심각하게 손실되었음을 나타냅니다.”(ICOMOS 아랍 지역 그룹)



## 국립중앙박물관은 학살 앞에 침묵할 것입니까!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정착촌을 확대하겠다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땅과 집을 빼앗고 있고,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의 식민 점령으로부터 독립을 염원하며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이래 계속된 학살로 인해 이제까지 6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면적 봉쇄로 구호품이 끊긴 가자지구 주민들은 심각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아 학살”입니다.

지난해 11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쟁 범죄와 반인륜적 범죄 혐의로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카이스트 당국은 학살 기관들의 피 묻은 손을 기어코 잡을 것입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은 2023년 기준 전 세계 박물관·미술관 중 관람객 수 6위, 아시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높은 세계적 위상을 자랑합니다. 이 국제적 행사에 테크니온과 같은 아파르트헤이트 부역 기관이 참가하게 된다면 학살과 점령을 ‘정상화’하고, 그에 대한 책

임을 희석시킬 것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테크니온의 CIPA2025 참가를 지금 당장 취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인도적, 야만적 범죄 행위에 항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팔레스타인 연대와 이스라엘 보이콧 요구는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국제사회학회(ISA)와 세계고고학대회(WAC) 등에서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 및 인종 학살에 연루된 기관 소속 학자들이 배제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CIPA 2025 조직위원회에게 이번 심포지엄에서 테크니온을 제외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출처: PACBI, ‘팔레스타인 학술·문화 보이콧 캠페인’) 국립중앙박물관과 카이스트 당국이 이 정당한 요구에 귀 기울이고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 ▶ 함께해요

- 국립중앙박물관 앞 릴레이 1인 시위 [8/18~22, 오후 1시~2시]
- [테크니온 참가시] 8월 24일(워크숍 당일) 오전 9시 30분, 국립중앙박물관 앞 항의 기자회견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10-173-517650 (예금주 최영준)

보내 주신 후원금은 연대 행동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

웹사이트



제한 팔레스타인인, 중동·북아프리카인 등 여러 이주민, 한국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합니다